

제14권 25호

2024. 12. 23~2025. 1. 5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연금자산 인출 시장 확대와 퇴직연금의 역할
- 이슈분석** 금융사의 AI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딜레마
- 금융경영브리프** Young HNW가 가져올 부의 이전방식 변화
베트남, QR결제 확대로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 중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앞서가는 시장, 뒤쫓아 가는 금통위
외 환 : 원화의 힘겨운 제자리 찾기
부 동 산 :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완만한 상승세 전망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연구위원	정승희(smiley77)
------	---------------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황선경(skhwang)
연구원	유승원(youth1)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선임연구위원	김완중(wjkim)
외 환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부동산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이예린(yerin.lee)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4권 25호

2024. 12. 23~2025. 1. 5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연금자산 인출 시장 확대와 퇴직연금의 역할
- 04 **이슈분석** 금융사의 AI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딜레마
- 08 **금융경영브리프** Young HNW가 가져올 부의 이전방식 변화
베트남, QR결제 확대로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 중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앞서가는 시장, 뒤쫓아 가는 금통위
외 환 : 원화의 힘겨운 제자리 찾기
부 동 산 :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완만한 상승세 전망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연금자산 인출 시장 확대와 퇴직연금의 역할*

정 승 희 연구위원

3층 연금 제도 하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축적해 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국내 연금 시장에서도 인출에 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그러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연금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는 연금 인출기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베이비부머 은퇴를 계기로 연금자산의 인출 본격화

705만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에 이어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으로 이들의 은퇴가 경제 전반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특히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과 자산 여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의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수명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증가하고 있어 은퇴 후 지속적인 생활비 창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하나금융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 시 최우선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매월 고정적인 소득원 확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퇴자들이 노후 생활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주요 소득원은 연금이 일반적이다. 연금의 범주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상품이나 비과세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이 포함될 수 있다. 다행히 이들 베이비부머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시절에 국내 연금제도는 3층 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에 이어 1994년에는 현재 연금저축 상품인 개인연금이 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2005년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경제적 여력이 되는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준비와 더불어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최대 관심사는 고정적인 소득원 확보

베이비부머 세대는 3층 연금제도 하에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자산을 축적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 자산을 축적해 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국내 연금 시장에서도 연금 자산의 인출에 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 퇴직연금은 적립에 비해 인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

축적한 연금자산을
실제로 연금으로
인출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

문제는 이렇게 이전 세대에 비해 연금제도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한 베이비부머 세대조차 고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은퇴 전에 축적한 연금 자산의 규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금을 연금으로서 수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방식이 디폴트 옵션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실제로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개인연금 대비 보다 보편적인 연금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퇴직연금조차도 아직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계좌 수 기준으로 10.4%에 불과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 확대 및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지난 2005년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23년 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382조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성숙 단계에 진입한 현재에도 퇴직연금 자산이 여전히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IRP를 중심으로 가입 대상자 확대, 이전 의무화,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적립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운용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DC 및 IRP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디폴트옵션, 그리고 올해 10월 도입된 현물이전 제도 등이 모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다.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단계에 비해 인출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과 관심은 미흡

그러나 아직까지 인출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과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연금 수령 방식의 세제 혜택 자체도 일시금 수령 방식 대비 크게 유리하지 않으며, 연금 자금의 원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등 세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시 세금 납부를 수령 기간에 따라 30~40% 감면해주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일시금 수령은 단순히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연금 수령은 자금 원천에 따라 복잡한 세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이 소진된 후 운용수익이나 자기부담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간 연금소

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등 고령자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 요구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을 촉진하고 자산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연금 자산의 규모 자체를 은퇴 후 장기간 연금 인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향후 보다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인출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매년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 절벽 시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연금’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 인출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제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일시금 수령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되, 고령자가 전반적인 노후자산관리 관점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단순한 세제 적용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 측면에서는 퇴직 시점에 이른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화가 가능한 다양한 인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는 호주의 경우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정부 차원에서 퇴직연금 인출상품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하였으며 이에 맞춰 사업자들은 인출 시점에 은퇴소득 상품을 포함한 종합적인 은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퇴직연금을 기존 퇴직금과 같다고 인식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노후에는 부동산 자산만 남는다면 다시 유동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5~10년간의 소득 공백 시기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연금’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는
연금화가 가능한
다양한 인출 상품을
제공

금융사의 AI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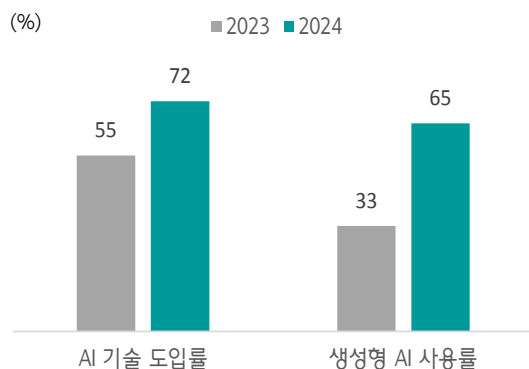
김 지 현 연구위원

전세계적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으로 기후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사도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AI 중심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동일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그린 데이터센터 건설, 탄소직접포집 투자 확대, 에너지 효율적인 그린 AI 개발 방안 등을 통해 AI 탄소량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도 향후 AI 도입 확대로 늘어날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배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면서 전력수요 폭증으로 기후위기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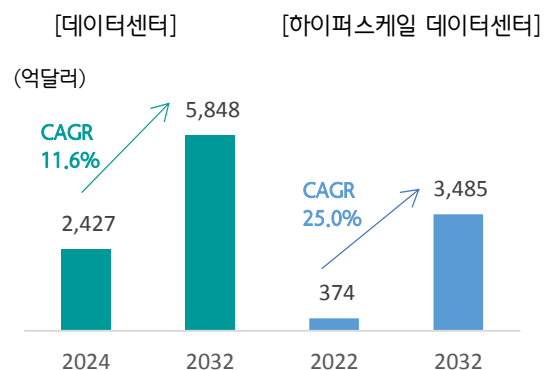
- 맥킨지에 따르면 기업의 AI도입 비중은 24년말 72%로 전년대비 17%p 증가, 생성형 AI는 65%로 22%p 증가했으며 향후 더 많은 부분에 AI 도입을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생성형 AI활용 증가로 2026년 세계 전력소비량이 2022년 대비 최대 2.3배 증가를 예상하며 아직 AI 상용화가 초기단계임에 심각성 강조
- 특히 AI기능을 정보생성으로 확대시키는데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으로 전력과 열기 냉각을 위한 물 수요 폭증, 탄소배출량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생성형 AI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서버랙 10만대 이상 수용)가 필요해 통상 100MW(전기차 35~40만대 연간 전력 소비량) 이상의 전력 수요 발생
 - 구글은 AI모델 개발로 탄소배출량이 5년간 48% 증가,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2020년 이후 탄소배출량 30% 증가

■ 글로벌 기업의 AI 활용 동향



자료 : 맥킨지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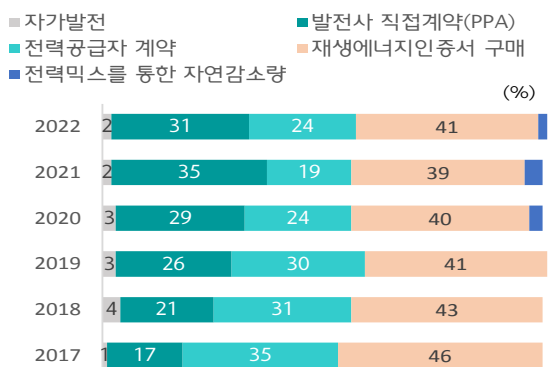
■ 금융사도 클라우드 퍼스트·AI 퍼스트·뱅크 등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전력수요 증가 예상

- 해외 은행은 디지털 전환에 클라우드 퍼스트·네이티브 전략을 앞세워 AI와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금융혁신을 추진 중이며 생성형 AI도입도 적극 확대 추세
 - BofA, JP모건, Citi 등은 핀테크기업 Zest AI 솔루션 도입 후 빅데이터 기반 개인 신용정보 등을 분석하는 대출승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출담당자의 의사결정 지원
 - 모건스탠리는 WM 어드바이저에게 시장 분석자료와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직원 전용 GPT4기반 생성형 챗봇 'AI@Morgan Stanley Assistant'로 고객 응대에 활용
 - 마스터카드도 AI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을 도입해 잠재적인 금융사기 피해 방지
- 국내도 금융당국이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며 SaaS 클라우드 활용과 생성형 AI 도입 확대 등을 통한 금융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금융혁신 추진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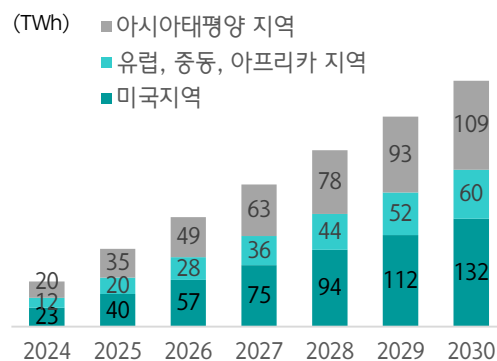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전력 활용을 확대중이나 AI전력 증가와 탄소중립에 충분히 대응하는데에 한계 존재

- 해외 은행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체결을 확대하는 추세
 - 美 Fifth Third Bank는 사옥 건물옥상에 태양광 설치 및 운영 PPA를 체결했으며, 영의 로이드뱅크는 태양광발전기업 Low Carbon과 10년 PPA를 체결
 - 호주의 Bank Australia는 풍력발전 Victoria와 10년 PPA계약을 체결
-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확대는 빠른 시일 안에 확충이 어렵고, 간헐성과 변동성 등 고유의 한계로 AI 전력 폭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기업들은 PPA계약 확보에 난항
 - 아일랜드와 미국 등 데이터센터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전력 충당이 어려워 석탄발전소 폐쇄를 연기하고 전력믹스 재생에너지 목표율을 감축하는 사례 속출
-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제한돼 있고 전력망 이용료 등 부가비용을 포함한 전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어려움 존재

■ 글로벌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이용 수단



■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부족량



자료 : RE100

자료 : BNEF(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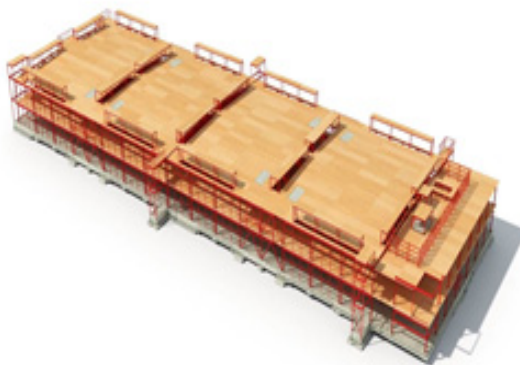
■ AI 전력 폭증을 겪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경우 그린 데이터센터 건설 방안을 모색하며 대응

-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전력·고효율 차세대 데이터센터 냉각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해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현재 864개의 해저 데이터센터를 운용 중
-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 중 발생하는 탄소량 감축을 위해 美 버지니아주에 짓는 새로운 데이터센터에 ‘교차 적층 목재’ 방식을 도입해 철근 구조와 조립식 콘크리트 방식의 건설 대비 탄소배출이 각각 35%,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아마존웹서비스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되는 친환경 시멘트 보충제를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카본큐어’에도 투자

■ 또한 탄소직접포집(DAC)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며 자체 탄소배출량 감축을 적극 추진

-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간 10만 톤의 탄소를 제거해주는 조건으로 ‘클라임웍스’와 계약 체결, ‘스톡홀름 엑서지’와 330만미터톤의 계약 체결로 탄소중립 목표 일환
- 구글도 DAC 스타트업 '홀로센과 10만톤의 탄소크레딧 사전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80어스(280 Earth)’에는 6만톤에 상응하는 배출권 생성 목적의 기업 합작 펀드 ‘프론티어 펀드’에 투자
 - ‘280어스(280 Earth)’ :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투자로 탄생한 탄소포집 스타트업
 - 프론티어 펀드 : 구글 모기업 알파벳, JP모건체이스, 메타 등 9개 기업이 참여 중
- 특히 구글은 기존의 탄소상쇄 크레딧 구매가 아닌 배출량 직접 감축을 우선할 것을 공언하며 2023년부터 탄소크레딧 구매를 중단(2022년 탄소크레딧 구매량 290만톤)
- 아마존은 탄소포집 기술업체 ‘1포인트파이버’의 DAC공장에서 향후 10년간 25만톤에 달하는 탄소 제거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탄소 흡수를 위한 새로운 DAC 소재의 배포를 지원하는 기후테크 회사 ‘카본캡처 Inc.’에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의 목재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조



자료 : 마이크로소프트

■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저 데이터센터



자료 : 뉴스미디어

■ 이외에도 AI 개발 단계부터 환경이슈에 대비하는 ‘Green AI’ 등 방법론 연구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

- AI 훈련 및 운영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법론에 대한 관심 증가로 AI 개발단계부터 환경이슈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 확대
 - 모델 경량화 : 모델 크기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프루닝(pruning)¹⁾과 양자화(quantization)²⁾ 기법을 사용해 연산량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감소 가능
 - 효율적 데이터 처리 :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샘플링 등 미니배치 크기로 조정해 훈련시 학습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감축
 - 하드웨어 가속기 : GPU, TPU와 같은 효율적인 하드웨어 가속기를 활용하여 연산을 최적화, 신경망 훈련 가속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
 - 알고리즘 최적화 : 알고리즘 효율성 개선으로 처리속도를 높여 전력소모를 감축하고,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업을 통해 최적 성능 달성에 집중

■ 국내 금융사도 AI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와 탄소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더 강화할 필요

- 국내 금융사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가 발전 설치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조달을 늘리고 있으며,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하나금융은 청라 데이터센터 등에 태양광 및 지열 발전을 운영중이며, KB금융은 37개소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
 -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사와 PPA로 변경이 가능한 전환부 옵션이 있는 REC(재생에너지인증서) 장기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
- 금융권의 생성형 AI 도입이 향후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해외 빅테크의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투자, 그린 AI와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를 활용해 AI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 📌

■ 빅테크기업의 그린 AI 개발을 위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 연구 동향

기업 명	AI 기술	영향 및 잠재력
Google	이산화탄소 인텔리전트 컴퓨팅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과 데이터센터 운영 시스템을 연계하여 에너지 집중 사용 태스크에 대한 일정에 대한 재생에너지 자원 관리 시스템
DeepMind	에너지 최적화 기술	데이터센터의 실시간 쿨링 시스템 관리를 통해 AI 애플리케이션 에너지 효율화
Microsoft	지구 이니셔티브 AI	환경 관련한 AI 기반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완화 관련 AI 모델 및 기술 지원
IBM	그린 호라이즌 프로젝트	AI 알고리즘과 위성데이터, 센서 데이터, 날씨 모델 데이터 등과 결합해 재생에너지 효율화 및 공기 정화 프로젝트 등 도시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

자료 : E-SPIN

[1] 프루닝(pruning) : 불필요한 뉴런이나 가중치를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하는 기법

[2] 양자화(quantization) : 모델의 가중치와 연산을 낮은 정밀도로 변환하여 계산량을 줄임

Young HNW가 가져올 부의 이전방식 변화

황 선 경 연구위원

Schwab의 HNW 대상 조사에 따르면 자산 이전 계획에 세대간 차이가 있으며 이는 향후 부의 이전 방식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젊은 HNW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자산을 향유하려는 베이비부머와 달리 다음세대와 부를 공유하며 긍정적 경험과 추억 쌓기를 희망한다. 또한 계획 수립 시 자산의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부여해 자산을 보호하고 가족가치를 고수하고자 한다. 금융회사는 젊은 HNW의 부의 이전에 대한 가치관에 맞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Schwab이 최근 HNW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이전 계획에 세대간 차이^[1]

- 미국 부유층(HNW)^[2]의 97%는 증여·상속 또는 기부 계획이 있으며 자산 수혜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유
 - 이전 재산의 가치는 HNW 1인 평균 410만 달러(약 60억 원), 초부유층(UHNW) 1인 평균 1,200만 달러로 부동산(40%), 투자자산(31%), 현금(18%), 보험(11%)으로 구성
 - 증여와 상속을 40:60으로 고려하며 자녀(33%), 배우자/파트너(32%), 자선/비영리 단체(11%), 형제/부모(7%) 순으로 이전할 의향이 높음
-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 X세대 HNW간에 자산의 이전 시기와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향후 부의 이전방식을 재편할 가능성
 -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보유 자산을 향유하고 싶어(45%)하는 베이비부머와 달리 젊은 부유층은 다음 세대와 ‘함께’ 자산을 누리는 것을 선호

■ 젊은 HNW는 30대에 자산이전을 계획하며 생전에 다음 세대와 부를 공유할 의향이 높음

- 美 HNW는 평균 42세에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밀레니얼과 X세대는 각각 평균 35세, 41세로 베이비부머(45세)보다 빨리 시작
- 젊은 부유층은 살아 있는 동안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보유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전할 계획
 - 美 HNW 중 밀레니얼과 X 세대는 각각 보유자산의 52%, 49%를 생전에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베이비부머는 보유자산의 19%만을 증여 자산으로 고려
 - 살아있는 동안 부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정적 지원/도움을 줄 수 있’고(46%), ‘함께 긍정적 추억과 기쁨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36%)

[1] “CHARLES SCHWAB HIGH NET WORTH INVESTOR SURVEY”, Schwab, 2024.12

[2] HNW(High-Net-Worth): 고액 자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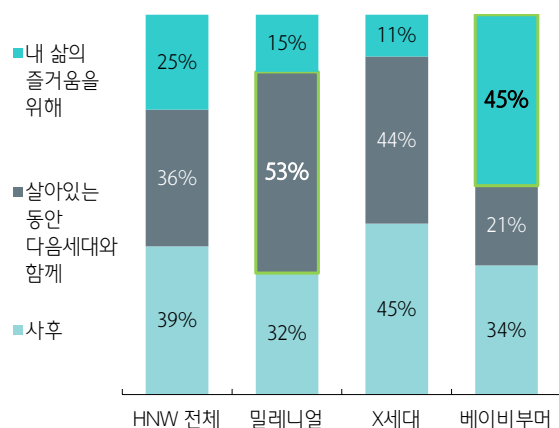
■ 또한 베이비부머에 비해 젊은 HNW는 이전 자산의 사용 방법을 더 엄격하게 규정

- 미국 HNW는 부의 이전 계획시 자산 사용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 자산 이전 의향이 있는 美 HNW의 70%는 자산 이전 절차를 통해 자산의 사용방법을 규정하며 특히 UHNW는 90%가 정해놓고 있음
 - 밀레니얼 HNW는 97%, X세대 HNW는 94%가 자산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는 반면 베이비부머 HNW는 3명 중 1명(34%)에 불과
- 여러 세대에 걸쳐 자산을 보호·보존하고 자기주도적 재정 책임을 장려하는 조건을 부여하며 가족 가치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규정을 추가
 - 사용 연령, 특정 자산의 수혜자, 사용 방법 등을 규정하며 UHNW는 분배를 위한 인생 목표, 경력관리나 학업성취도 등 더욱 엄격한 지침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 밀레니얼은 사용 방법을 가장 빈번히 규정(43%)하고 X세대는 사용 연령을 지정하는 경향(46%)이 있으며 가족모임 또는 자선·기부 등의 규정에도 베이비부머보다 적극적

■ 금융회사는 젊은 HNW의 부의 이전에 대한 가치관에 맞는 WM 서비스를 고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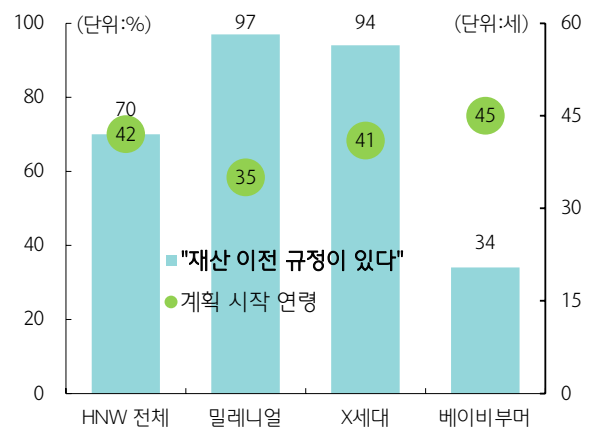
- HNW의 금융니즈는 연령에 비례해 부의 축적에서 보존과 이전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며 전문적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
 - 조사 결과에 따르면 美 부유층의 절반 이상이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정 고문(56%)이나 변호사(55%)와 협력
 - 자산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해 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족간 공유된 가치가 반영된 계획을 유언장(57%), 위임장(38%), 신탁(34%) 등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문서화
- 우리나라도 젊은 부유층의 자산 이전 준비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증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부머를 넘어 밀레니얼과 X세대의 자산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니즈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

■ 부의 이전 시기와 방식



자료 : Charles Schwab(2024.12)

■ 부의 이전 규정 보유율 및 계획 시작 연령



자료 : Charles Schwab(2024.12)

베트남, QR결제 확대로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 중

유승원 연구원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성장과 정부의 비현금결제 장려 정책을 기반으로 QR결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수수료가 없는 QR표준을 출시하고, 일본, 중국 등과도 국경 간 QR결제 연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구조도 소수의 대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QR연계 시 해외결제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들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성장과 정부의 비현금결제 장려 정책을 기반으로 QR결제 급증

- 베트남의 디지털 결제시장은 2024년 기준 총 거래액 1,490억 달러에서 매년 연평균 12~15% 성장하여 2030년에는 3,000~3,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1]
- 베트남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한 비현금결제 장려 정책과 낮은 신용카드 이용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등의 요인으로 인해 QR결제 확대
 - 2024년 1~2월 베트남의 모바일 결제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QR결제 거래액은 1,146% 증가(베트남 중앙은행)

■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현금 사용률 8% 미만을 목표로 수수료가 없는 QR결제 표준을 출시하고 국경 간 QR결제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현금결제 장려정책을 시행

- 베트남결제공사(NAPAS)는 수수료 무료의 QR결제 표준 'VietQR'를 출시('21.6)
 - 기존 QR결제는 MoMo 가맹점에서는 MoMo만, ZaloPay 가맹점에서는 ZaloPay만 결제가 가능한 폐쇄적 구조였으나, VietQR은 은행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방형 구조로 A은행의 가맹점에서 B은행의 앱이나 C사의 전자지갑을 활용해서 결제가 가능
 - 2023년 기준 VietQR를 이용한 결제거래 건수는 2022년에 비해 약 8배 증가하였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1,000배 이상 증가^[2]
- 베트남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과 국경 간 QR결제 연계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타 ASEAN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으로도 확대를 추진
 - 베트남결제공사(NAPAS)는 2025년 한중일과 국경 간 QR결제 연계를 강화할 계획^[3]

[1] "e-Conomy SEA 2024 Report", Google, Temasek, Bain, 2024.10

[2] "Lượng giao dịch VietQR tăng gấp hơn 1.000 lần chỉ sau 2 năm", Baodautu, 2024.10

[3] "Vietnam's NAPAS to expand QR payment reach to China, Japan, South Korea", VnEconomy, 20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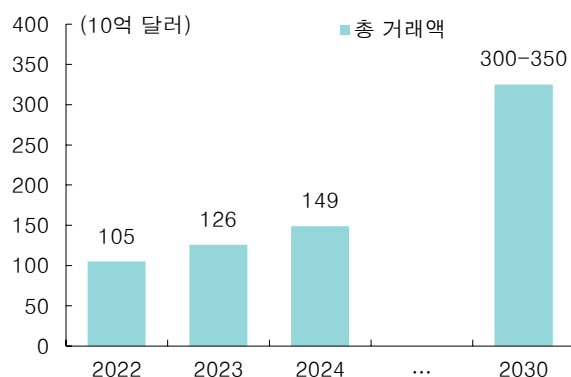
■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도 변화하며 소수의 대기업 및 은행을 중심으로 재편

- (시장 현황) 베트남의 간편결제 시장은 약 5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시장점유율 대부분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 송금·결제를 기반으로 슈퍼앱으로 성장한 핀테크 기업 MoMo, 베트남 인구 1억 명 중 7,700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24.6 기준) 'Zalo'의 자회사 ZaloPay,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인 플랫폼 'Shopee'의 자회사인 ShopeePay 등 대기업 중심 시장
- (시장 변화) 수익성 등으로 중·소규모 간편결제 기업은 사업을 중단하는 반면, 소비자의 통합 금융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며 최근 은행 앱 이용률은 12%p 상승
 - 베트남의 간편결제 시장은 현금 살포식 출혈 경쟁 구조로 최근 그랩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간편결제 기업 Moca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202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중단

■ 향후 국내도 베트남과 QR연계가 진행될 전망으로, 금융사들의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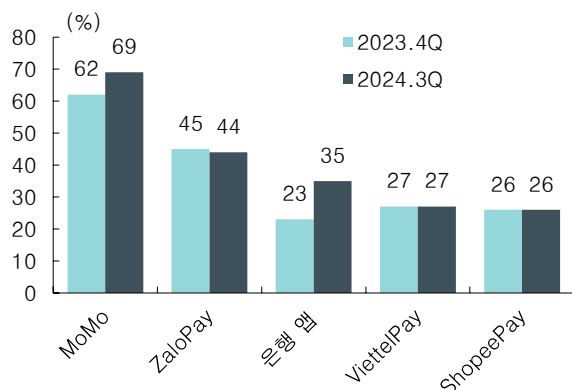
- 베트남은 일본, 중국과 QR연계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국내와도 연계 진행 예상
 - 일본은 ASEAN 국가와 협력해 '25년 4월까지 국경 간 QR결제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
 - 중국 유니온페이는 '24.10월 베트남과 QR결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4]
-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 다음으로 베트남을 많이 방문^[5]하여 향후 국내와 베트남 간 QR연계 시 해외결제 시장도 크게 변화^[6]할 전망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
 - 베트남의 식음료 매장, 노점상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에서 현금과 QR결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국내와 베트남 간 QR연계 시 해외결제 문화도 변화할 전망
 - 국내는 단일한 QR결제 표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연계 추진은 어려운 상황 

■ 베트남 디지털 결제시장 총 거래액 규모 추이



자료 : Google, Temasek, Bain

■ 베트남 주요 간편결제 앱 이용률 변화



자료 : Decision Lab

[4] "UnionPay and Vietnam's NAPAS Link QR Code Payment Systems", Fintech Singapore, 2024.10

[5] '24.1~10월 기준 국내 관광객은 일본(720만명) 다음으로 베트남(373만명)에 많이 방문

[6] 현재는 베트남에서의 QR출금만 지원하거나 극소수의 가맹점에서만 국내 QR결제를 지원

금리: 앞서가는 시장, 뒤쫓아 가는 금통위

김 완 중 선임연구위원

2025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연준의 금리인하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추진 정책들의 부정적 영향으로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과 함께 금리 인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중금리는 공급물량 확대와 금리인하 선반영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하락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WGBI 관련 자금 유입과 반도체 경기 정점 논란, 트럼프 정책 영향 현실화 등 경기부진 요인이 부각되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 미국과 여타국 간 펀더멘탈 차별화로 통화정책에 대한 눈높이 차별화 진행 중

- 美, 소비·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책 관련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로 연준의 기존 정책경로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
 - 팬데믹 기간 기술·IT 등 고임금·고생산성 부문으로 고용이 재배치됨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이 견조한 소비 증가세를 유도하며 '24.2Q/3Q 각각 3.0%/3.1%의 성장을 기록
-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에 힘입어 美 노동생산성이 팬데믹 이전 대비 큰 폭 상승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며 중립금리 수준 또한 상향 조정
 - 연준 점도표에서 제시하는 장기 기준금리 수준 또한 2.9%에서 3.0%로 상향 조정
- 반면에 유로존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경기부진 및 디플레이 압력 부각으로 긴축적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지속 인하할 전망이나, 일본은 실질임금(+) 전환, 물가상승 등을 기반으로 제약적인 수준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달리 BoJ는 '25년중 2회(50bp) 인상 전망

■ 국내, '트럼프+탄핵 정국'이 성장률 추가 하향 초래하며 금리 인하 폭 확대로 이어질 전망

- 국내 경제는 주요 산업내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함께 트럼프 정부 추진 정책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25년 성장률이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 트럼프 정부의 보편 관세 10%, 대중 관세 60% 이외에 對美 무역 흑자국(韓 '24년 500억\$ 규모 추정) 들에 대한 보복 관세 표방은 국내 수출기업 실적 악화 초래 전망
- 韓銀의 지난 11월 경제전망이 향후 미국발 관세 인상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데다 탄핵 정국 이후 민간부문의 소비·투자 위축을 감안할 때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적극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 부각
 - 한은, 예정된 관세율 일괄 적용시 한국의 對中 수출은 약 6%, GDP는 1% 하락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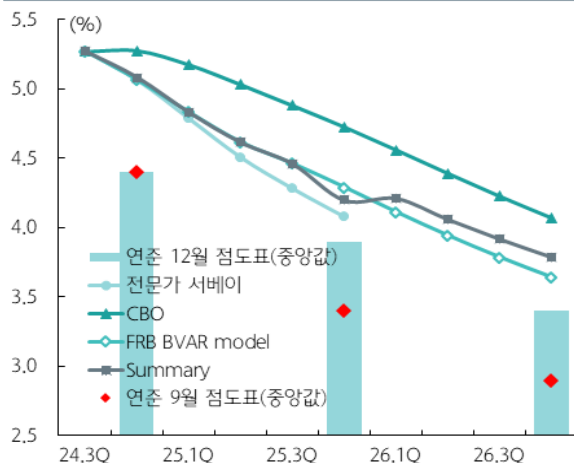
■ 금융불균형 이슈 완화, 경기부양 필요성 증대되며 '25년 3회 75bp 기준금리 인하 전망

- 금리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대출 급증 이슈는 정부의 거시건전성대책 강화 및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억제될 것으로 전망
 - 한은은 11월 전격 추가 인하 단행과 같이 경기부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집행 예상
-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유로존 경기 부진으로 원자재가 안정이 장기화되며 고환율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
 - 한은 소비자물가 전망(% , 8월→11월) : '24.2H 2.2→1.8, '25.1H 2.2→1.9, '25.2H 2.2→2.0
- 한은의 중립금리 추정 수준이 1.8~3.3%(실질 -0.2~1.3%)인 점 고려시 잠재성장률(2.0%)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25년의 경우 중립금리 추정치 하단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상반기는 공급물량 확대로 낙폭 제한, 하반기는 불확실성 해소 및 수급 개선으로 하방 압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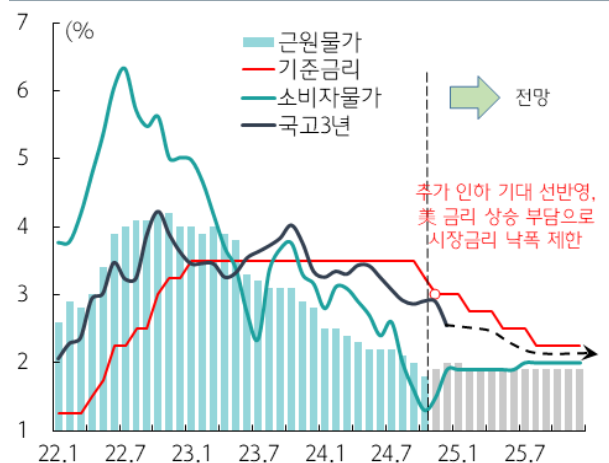
- '25년 상반기는 예산 집행을 위한 국채 순발행 확대,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 환경하에 발행이 급증했던 크레딧물의 차환 발행 이슈가 상반기 금리 낙폭을 제한할 전망
 -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인플레이 우려는 원/달러 환율 하락 제한 요인
-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 정점 논란 대두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집행, 美·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이슈 등에 기반한 '26년 수출 경기 둔화 우려가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하반기부터 WGBI 관련 자금 유입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도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며 시중금리 하락에 일조할 전망
 - WGBI내 한국 비중 2.2% 고려시 75조원 규모의 자금이 '25.4Q부터 순차 유입 전망 

■ 연준 점도표 및 주요 기관의 美 기준금리 전망



자료 : FRB

■ 韓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경로 전망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외환: 원화의 힘겨운 제자리 찾기

김영준 연구위원

'24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25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 진정과 BOJ 금리인상에 따른 엔화 강세 등에 힘입어 고점을 낮추는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구조적인 달러화 투자 수요는 환율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정책이 안전자산 선호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원/달러 환율] '24년 킹달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으로 원화 약세 심화

- 원/달러 환율은 견조한 美 성장세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축소로 상승 출발했으며, ECB의 선제적 금리인하와 중동지역 갈등 심화 등으로 상단을 높임
- 3/4분기 들어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과 연준의 예상외 빅컷(-50bp)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9월말 1,300원대 초반까지 반락하는 등 원화 강세가 진행
- 그러나 11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 심화와 12월 韓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급등
 - 위안화가 中 경기부양책 실망감으로 약세를 보인 것도 원화 약세에 기여

■ [국제 환율] 美 주식시장의 초강세 및 주요국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달러화 강세 지속

- '24년 달러화는 美 고용시장 둔화와 금리인하 개시 등으로 3분기 잠시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중동지역 갈등심화와 유로지역 경제 및 정치 불안,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초강세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으로 '23년에 이어 강세가 이어짐
- 상반기 초약세를 보였던 엔화는 9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개시 등으로 한때 강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강조되며 약세로 전환
 - 10월 日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공명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
- 유로화도 독일 등 주요국 경기부진 장기화와 이로 인한 ECB의 선제적 금리인하, 佛·英의 조기총선 등 정치 불안 등이 겹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함
-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수출 밀어내기를 위한 약세 용인과 11월 내수 진작 정책 관련 실망감,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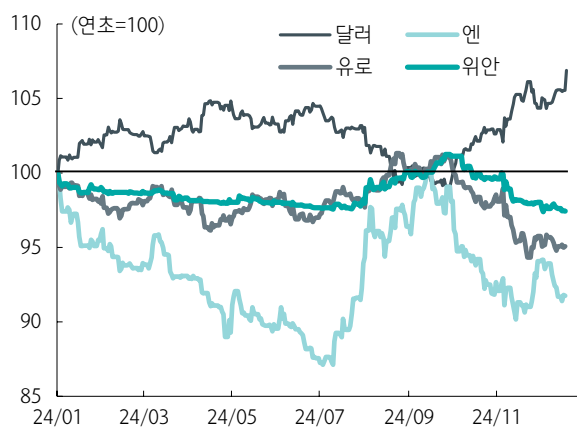
■ '25년, 연준 금리인하로 달러 하락 예상, 트럼프發 충격은 달러화 강세를 소환할 소지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고용시장 둔화 및 인플레이 압력 완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달러화 초강세 압력이 약화될 전망
 - 다만 고율관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트럼프發 과격한 정책이 집행될 경우 불확실성을 높이고 연준 금리인하를 제한하여 달러화 강세를 소환할 가능성
- 엔화는 일본은행의 점진적 금리인상과 완만한 성장률 개선 등으로 강세가 예상
- 유로화는 달러화 강세 압력 약화에 따른 반등이 기대되지만, 역내 허약한 펀더멘탈과 ECB 금리인하 등으로 강세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위안화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中 통화정책 기조 전환(신중한 → 적절한 완화)으로 금리 및 기준율의 추가인하가 예상되면서 약세 압력이 지속될 전망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엔화 강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 점진적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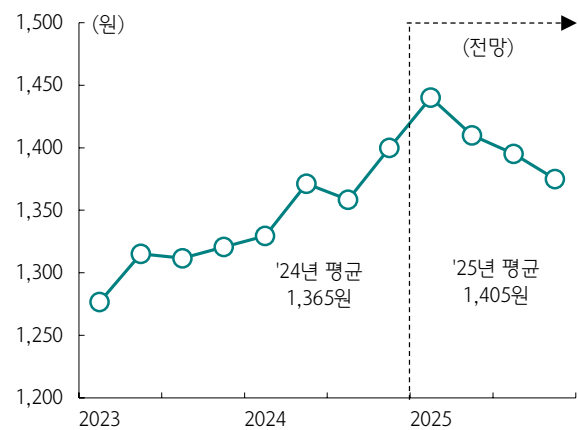
- '25년 원/달러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가운데, BOJ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 강세 등에 힘입어 고점을 점차 낮출 전망
 - '25년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제고 및 달러화 유동성 유입 가능성도 원화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對美 FDI·주식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달러화 투자 수요와 자동차, 전자부품 등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통상압력은 환율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25년 중 원/달러 환율은 1,360~1,46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전망 

■ 2024년 주요 통화 흐름



자료 : Bloomberg

■ 원/달러 환율 추이 및 전망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 연준은 점도표상 '25년 50bp → '26년 50bp → '27년 25bp의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

부동산: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완만한 상승세 전망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25년에도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탄핵 정국으로 매수심리가 저하됨에 따라 매매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가격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겠으나 수도권 핵심지역의 ‘뚝뚝한 한 채’ 매수세는 유지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비사업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공급부족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매수심리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상승세로 전환

- 정책 모기지 공급, 매수심리 회복, 수도권 중심 실거래가 상승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회복세를 지속해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YoY) : -4.68('22년) → -3.55('23년) → 0.09('24.11월)
- 전세가격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으로 신규 전세공급이 부족해지고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로 상승세로 전환되고 매매보다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YoY) : -5.56('22년) → -5.07('23년) → 1.37('24.11월)
- 다만, 주담대 위주의 매매 거래가 늘면서 시장 회복세를 이끌었기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24.10월부터 매매, 전세 모두 상승세 둔화
 -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대출총량 규제, 주담대 금리 상승 등 대출 규제 강화

■ 매매여건 악화에도 수도권의 ‘뚝뚝한 한 채’ 선호로 2025년 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 기준금리 인하는 개시되었으나 2025년에도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세 관리,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으로 매매여건은 악화될 전망
- 수요 위축 영향이 집중된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매물이 적체되며 가격 하방리스크 확대는 불가피
 - 준공 후 미분양(호) : 7,518('22년) → 10,857('23년) → 18,307('24.10월)
- 하지만 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는 수도권 핵심지역의 소위 ‘뚝뚝한 한 채’로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시장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
 - 지방 미분양 및 非아파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우수매물의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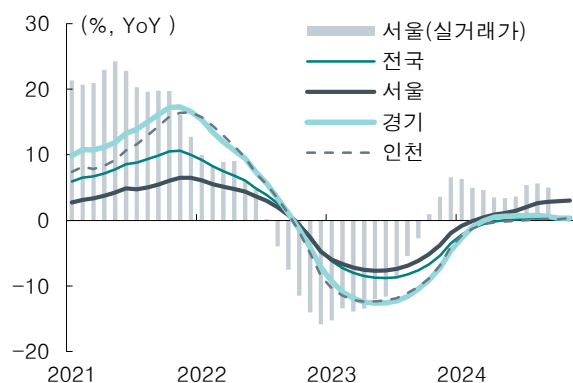
■ 준공, 입주물량 감소로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중심 매수세 확대될 전망

- 부동산 PF 위축, 공사비 규모 확대로 준공물량이 감소하고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2025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하면서 중장기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
 - 주택 준공물량(천호) : 431('21) → 414('22) → 436('23) → 362('24.10월 누적)
 - 아파트 입주물량(천호, 수도권/지방) : 194/172('23) → 175/190('24) → 130/138('25)
-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으로 공급되는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갈등에 공급시점이 지연될 수 있어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전망
 - 아파트 입주물량 중 정비사업 비중은 전국 25%, 수도권 39%(2025년 기준)
- 지방은 입주물량 과잉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신축 아파트가 시세 대비 고분양가로 공급되어 매수세의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 증대

■ 다만, 탄핵 정국으로 당분간 심리는 저하되고 규제 완화는 지연되며 거래량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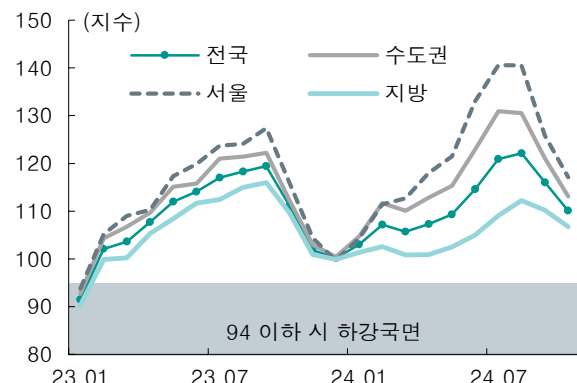
- 대출 규제 강화로 저하된 매수심리는 12.3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 관망세가 짙어져 매매 거래량이 당분간 위축될 전망
 -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서 매매 거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 외곽에서도 가격 하락지역이 증가할 소지
- 또한 법안 심의 지연 등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순연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은 가격 하방리스크 확대
 -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국회 계류 중
-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어도 그동안의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주택 공급부족은 더욱 심화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에 주목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지역별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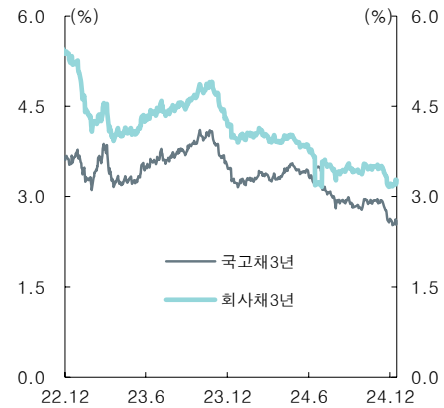


자료 : 국토연구원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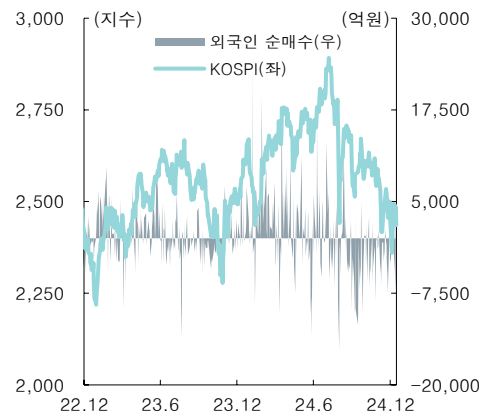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11월말	3.07	3.29	3.05	3.19	2.61	2.65
12월 13일	3.02	3.32	2.96	3.20	2.54	2.62
12월 16일	3.02	3.38	2.96	3.21	2.55	2.66
12월 17일	3.01	3.38	2.99	3.28	2.62	2.73
12월 18일	3.02	3.38	2.96	3.20	2.54	2.65
12월 19일	3.03	3.39	2.99	3.28	2.60	2.74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11월말	2,455.9	91,065	384	-7,494
12월 13일	2,494.5	88,495	578	-1,739
12월 16일	2,489.0	84,664	527	-4,339
12월 17일	2,456.8	92,848	559	-7,020
12월 18일	2,484.4	83,386	442	3,924
12월 19일	2,435.9	84,438	504	-4,338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11월말	1,394.7	931.9	192.6	1,475.9
12월 13일	1,433.0	932.6	196.9	1,504.2
12월 16일	1,435.0	930.8	197.0	1,508.0
12월 17일	1,438.9	937.2	197.5	1,509.1
12월 18일	1,435.5	928.0	197.0	1,487.9
12월 19일	1,451.9	922.8	198.9	1,5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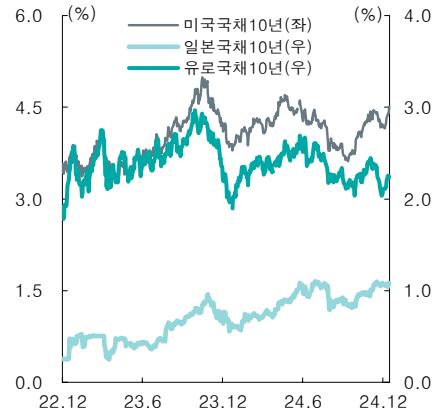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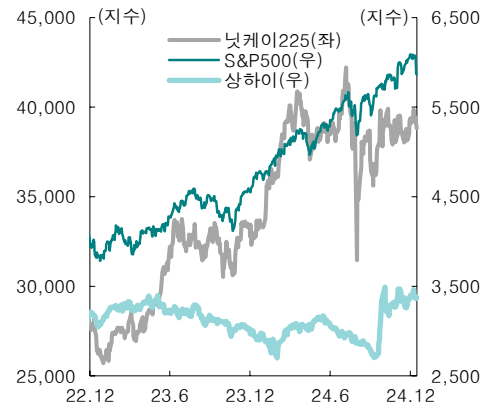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 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11월말	4.58	4.47	4.15	4.17	1.05	2.09
12월 13일	4.58	4.35	4.19	4.33	1.05	2.21
12월 16일	4.58	4.35	4.24	4.40	1.04	2.26
12월 17일	4.58	4.35	4.25	4.40	1.07	2.25
12월 18일	4.58	4.35	4.24	4.40	1.08	2.23
12월 19일	-	4.34	4.35	4.51	1.08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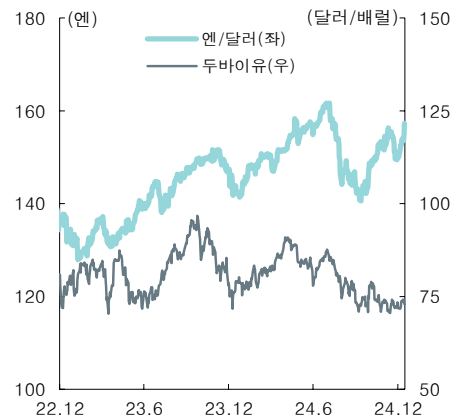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11월말	6,032.4	38,208.0	3,326.5	4,804.4
12월 13일	6,051.1	39,470.4	3,391.9	4,968.0
12월 16일	6,074.1	39,457.5	3,386.3	4,947.0
12월 17일	6,050.6	39,364.7	3,361.5	4,942.6
12월 18일	5,872.2	39,081.7	3,382.2	4,957.3
12월 19일	5,867.1	38,813.6	3,370.0	4,879.0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11월말	149.64	1.058	72.3	2,681.0
12월 13일	153.66	1.050	73.5	2,675.8
12월 16일	154.17	1.051	74.1	2,670.0
12월 17일	153.52	1.049	73.5	2,662.0
12월 18일	154.69	1.036	73.6	2,653.3
12월 19일	157.33	1.037	72.8	2,609.1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5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12월 20일 인쇄

2024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5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